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Allianz, 장기적 관점의 투자전략 추진

- Allianz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, 보험영업 감소, 저조한 투자수익에 대응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함.
 - 불확실성의 증대는 위험회피 성향을 확대시켜 주식보다는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을 가져왔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수익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투자전략 변경의 원인을 제공함.
 - 또한 2년 이내에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도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이에 대비한 투자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 - Allianz는 유동성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장기투자에 비교우위를 보인다는 자체 평가도 일조한 것으로 보임.
 - 장기적으로는 수입보험료 증가의 둔화로 보험영업이익이 하락하고 투자수익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주식과 채권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한편, 사모펀드(private equity), 부동산, 에너지관련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함.
 - CFO(재무담당최고책임자)인 Achleitner는 4,000억 파운드의 운용투자자산 중 사모펀드 및 에너지관련 기간투자에 현재 8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 150억 파운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로 확대하여 총 300억 파운드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힘.
 - 에너지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Allianz는 이미 45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성을 갖기 위해 스웨덴의 Vattenfall로부터 독일지역 전력공급 배선사업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부동산 투자는 현재 80억 파운드의 규모의 투자를 230억 파운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.

(Financial Times, 1/18)